이번 주에는 무엇을 볼까? : 7월 FOMC, 韓 수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를 시사한 7월 ECB

ECB는 예상대로 기준금리와 QE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이전은 지난 2003년 '2% 바로 아래')로 18년만에 상향 조정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을 통해 향후 일시적 물가 상승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중기적인 물가 목표 달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눈에 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가이던스는 조기 긴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 목표치 수정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로존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에서도 현 수준의 비둘기파적인 행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딜레마에 빠진 미 연준, 어떤 결과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 쉽지 않아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CB의 행보를 감안할 때 테이퍼링 논의를 잠시 뒤로 미뤄도 된다는 유혹이 커진 반면, 통화정책의 신뢰성 및 지난 6월 FOMC 이후 받아든 쇼크 수준의 6월 소비자물가 결과 등은 매파적 성향을 띄기 시작한 구성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마땅치 않음을 말해준다. 특히, 하반기에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치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부증권(MBS) 축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에 언급했지만 ECB의 이번 결정에는 유로존의 다른 경제적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 FOMC 직전 10.3%에 달했던 GDPNow의 2/4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7월 20일 현재 7.6%로 낮아져 블룸버그 예상치(8.5%)에 못 미친다. 델타 바이러스의 위협도 가볍지 않다. 7월 3째주 현재, 전체 50개주 중 무려 49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고, 동기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1.9만건(로이터, 35.0만건)으로 전주 대비 5.1만건이나 급증, 백신 접종과 함께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났다. 결국, 미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대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점에서 '선확인' 및 '후대응' 전략을 권고 드린다.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6.0% 수준 예상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0.9%, 전년비 6.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이 유효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 향 수요 증가로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 수출도 견조하다. 금주 발표될 7월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30.9%/40.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분기에는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민간소비도 회복됐을 공산이 크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고 있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여파는 하반기 소비와 고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듯 하다. 한국 경제는 연간 4.2% 내외의 성장을 기대한다.

Macro Comment

Economics

Economist/자산배분 나중혁
02-3771-3638
jhna73@hanafn.com

Economist/원자재 전규연
02-3771-8196
kychun@hanafn.com

RA 이규희
02-3771-7513
gyuhee.lee@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표 1. 작년 ECB의 팬데믹 대응 주요 정책 및 통화정책회의 내용

날짜	정책	주요 내용
20.3월	TLTRO-Ⅲ	TLTRO-Ⅲ 조건완화: 20.6월~21.6월 금리는 -0.75%~-0.25% 적격자산의 50%까지 대출/ 21.9월 이후 조기 상환 가능
	LTRO	은행 유동성 공급 및 단기금융시장 여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대출프로그램 도입 시행일: 20.03.17~20.06.10/ 금리 -0.50%
	PEPP	7500억유로 규모의 PEPP 발표: 그리스 국채, CP를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 Capital Key 한도 미적용
	APP	1200억유로 확대. 즉 연간 3600억유로 규모
20.4월	TLTRO-Ⅲ	TLTRO-Ⅲ 조건완화: 20.6월~21.6월 금리는 -1.00%~-0.50%
	적격담보기준	은행대출 적격담보기준 완화: 담보헤어컷 비율 20% 인하
	PELTROs	bridge LTRO 만료 후 유로존 은행 및 단기 금융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 금리 -0.25%
20.6월	PEPP	6000억유로에서 1조 3500억 유로로 확대/ 21.6월까지 연장
20.12월	PEPP	1조 3500억유로에서 1조 8500억유로로 5000억유로 확대 순매입기간 21.6월에서 22.3월까지로 9개월 연장
	APP	2020년까지 연간 3600억 유로 규모 유지, 2021년 매월 200억 유로 순매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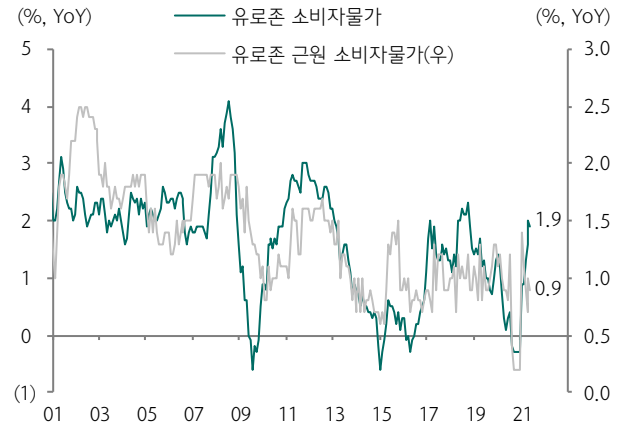
자료: ECB, BOK, 하나금융투자

표 2. 올해 ECB의 팬데믹 대응 주요 정책 및 통화정책회의 내용

날짜	정책	주요 내용
21.1월	PEPP	총 1조 8500억 유로 규모 지속. 최소 2022년 3월말까지 PEPP실시(코로나19 위기단계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 까지) 단, 유리한 금융 환경이 유지된다면 1.85조 유로를 모두 소진할 필요가 없음.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인플레이션 경로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경우 PEPP 규모의 재조정도 가능
	OUTLOOK	POSITIVE: 1) 백신 접종 시작, 2) EU-영국 브렉시트 합의 도달, 3) EU회복기금, 4) 제조업 경기 회복, 5)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NOT-SO-POSITIVE: 팬데믹 상황 악화에 따른 락다운 조치 강화 (+)유로존 백신 접종 지연
21.3월	PEPP	총 1조 8500억 유로 규모 지속. 최소 2022년 3월말까지 PEPP실시(코로나19 위기단계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 까지) 자금 조달 여건과 물가전망에 대한 공동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분기에는 올해 첫 몇 개월 보다 빠른 속도로 매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단, 유리한 금융 환경이 유지된다면 1.85조 유로를 모두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문구도 유지
	APP	매월 200억 유로 순매입 지속. ECB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 계속할 것
	OUTLOOK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3.9% →4.0%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4.2% →4.1% 2021년 1분기 경제 성장이 재차 위축될 수 있음. 단기 전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이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제한 수준에 달려 있음. 올해 하반기부터 EU 회복기금, 통화/재정 정책 지원, 대외 수요 개선 등을 바탕으로 경기의 강한 반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봄 2021년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 1.0% →1.5% /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 1.1% →1.2%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경기가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상승 압력 높지 않다고 판단 최근 유가 급등과 독일의 한시적 VAT 인하 종료, 공급망 제약 등으로 인한 물가의 단기적 상승 가능성 있으나, 약한 수요와 불안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물가 하방 요인임
21.4월	PEPP	최소 2022년 3월말까지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순매입 규모 유지. 현재까지 확인되는 데이터는 자금조달 여건과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난 3월 회의 당시와 일치. 이에 2분기 PEPP 매입 속도가 연초 몇 달간의 수준보다 높은 속도로 지속될 예정
	APP	매월 200억 유로 순매입 지속. ECB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 계속할 것
	TLTRO-Ⅲ	최근 TLTRO-Ⅲ 오퍼레이션에서 높은 자금 조달을 기록. TLTRO-Ⅲ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21.6월	PEPP	최소 2022년 3월말까지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순매입 규모 유지. 코로나19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 다음 분기도 PEPP 매입속도가 올해 초 몇 달간 보다 높을 것으로 밝힘
	OUTLOOK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4.0% →4.6%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4.1% →4.7% 2021년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 1.5% →1.9% /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 1.2% →1.5%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올해 하반기 봉쇄조치가 빠르게 완화되고 소비자 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으며, 공급 병목 현상도 점차 완화되면서 경제활동 가속화를 기대. 2022년 1분기 실질 GDP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물가는 내년 초에는 일시적 요인이 제거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것으로
21.7월	PEPP	최소 2022년 3월말까지 1조 8500억 유로 한도의 채권매입 정책을 지속
	APP	매월 200억 유로 순매입 지속.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 지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만기채권의 원금을 재투자정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금리 관련 포워드가이던스 변경: (기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망 시계에서 목표(2% 근접 하회)에 견조하게 수렴하고, 동 수렴이 근원인플레이션 동학에 일관되게 반영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 (변경) 인플레이션이 전망시계 기한을 상당기간 앞서 2%에 도달한 뒤 잔여기간 동안 동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중기적으로 2%에 안착한 인플레이션과 부합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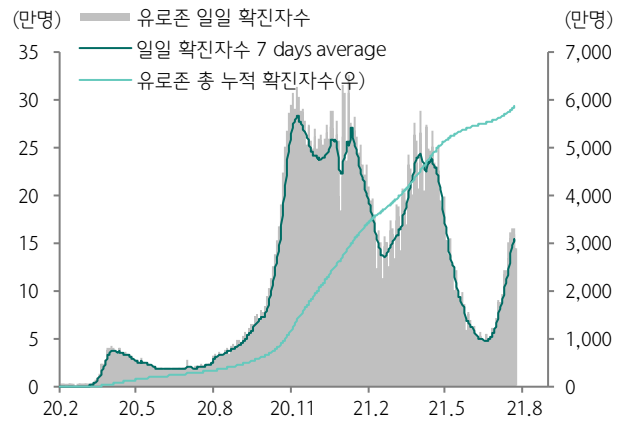
자료: ECB, BOK, 하나금융투자

그림 1. ECB의 물가 척도인 HICP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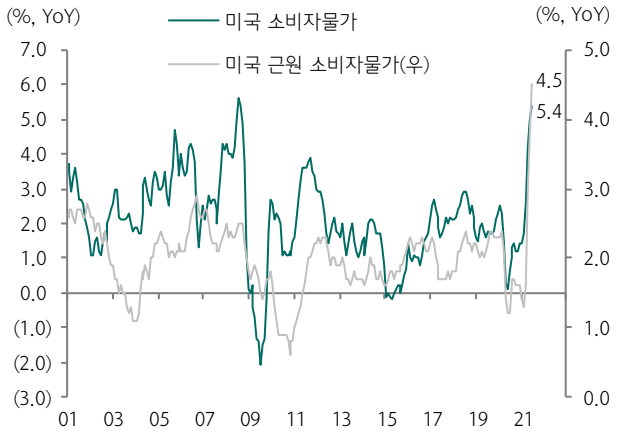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유로존에서는 델타 변이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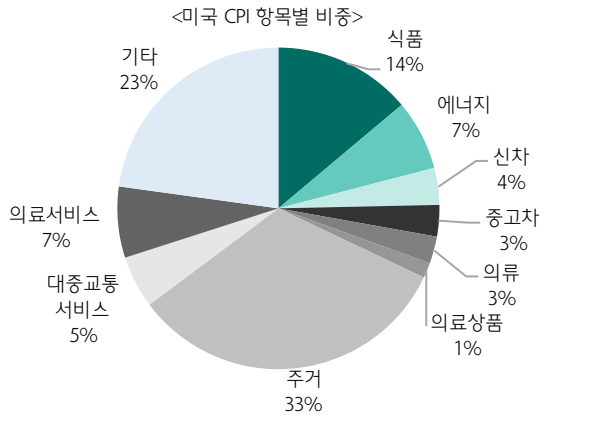
자료: WHO,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시장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미국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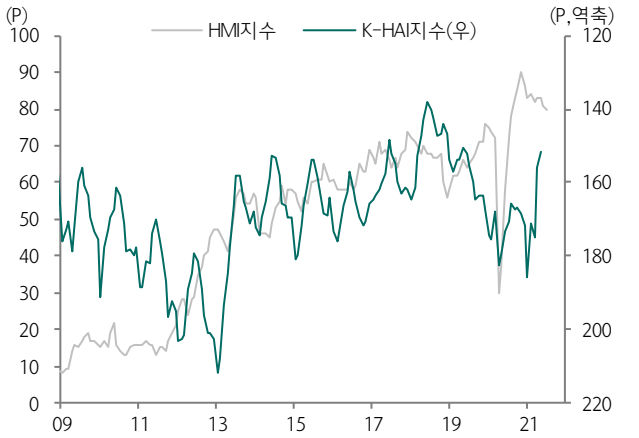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4. 미국 CPI 항목별 비중('21.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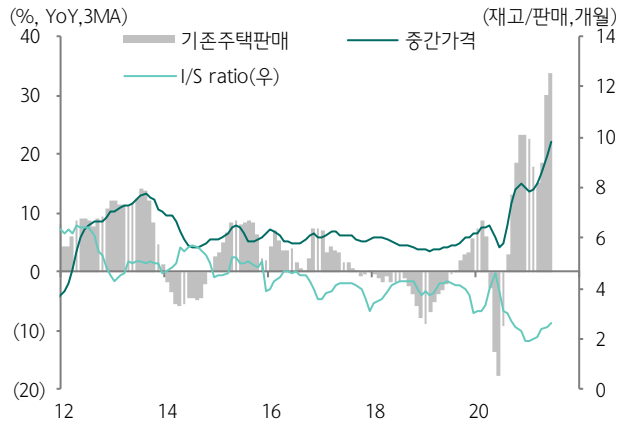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주택 수요측 체감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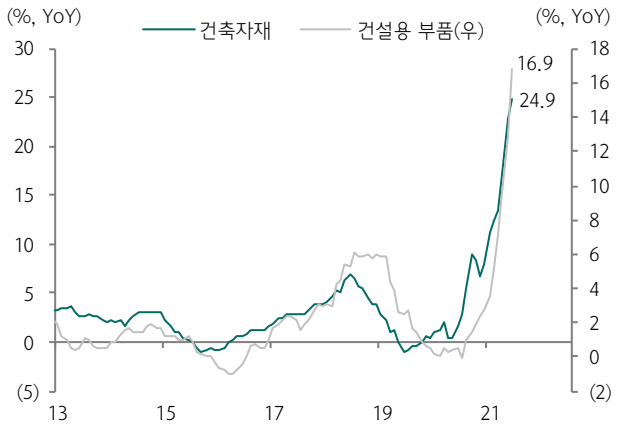
주: HMI는 주택공급측, K-HAI는 소비자측 체감경기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6. 타이트한 수급은 기존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어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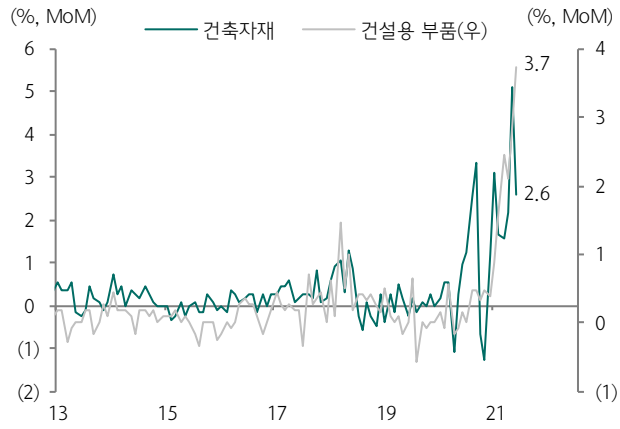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7. 생산자물가 내 건축자재 및 건설용 부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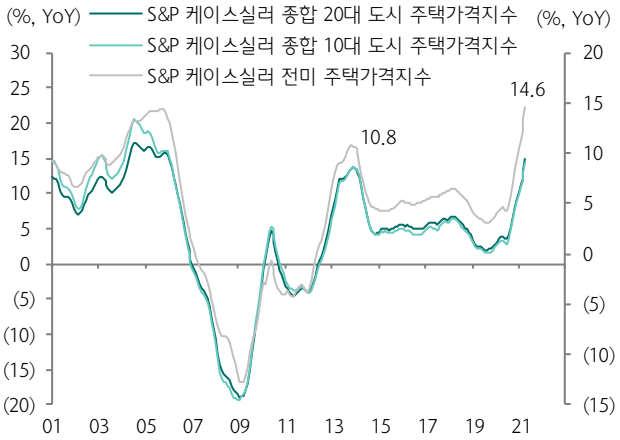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8. 건축자재 및 건설용 부품의 전월비 가격 오름세도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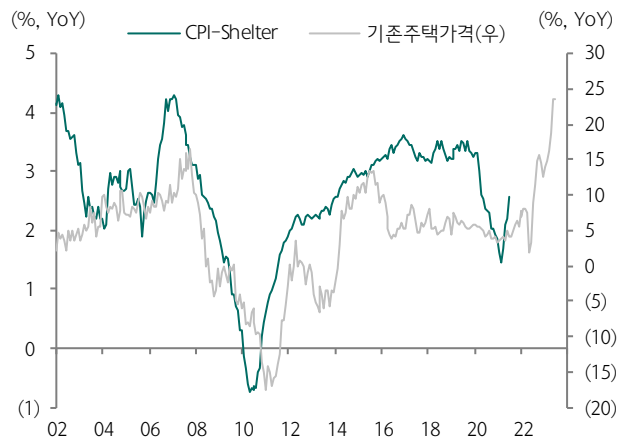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9. 미국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가격지수 오름세에 주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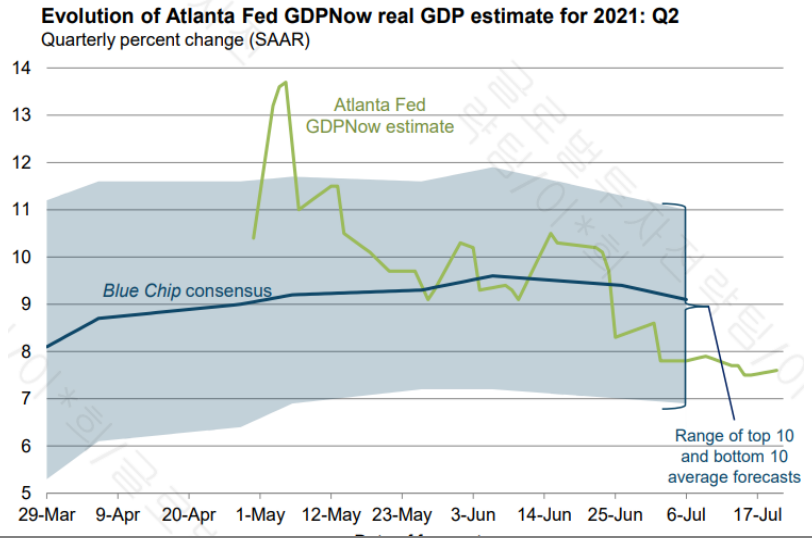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주택가격이 주거비용(CPI-Shelter)에 미치는 악영향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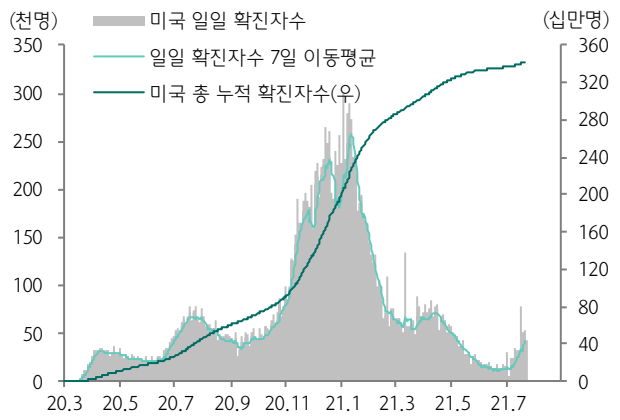
주: 기존주택가격은 CPI-Shelter에 24개월 선행 시 가장 높은 시차상관관계 형성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지난 6월 FOMC 이후 눈에 띄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GDPNow의 2/4분기 미국 성장률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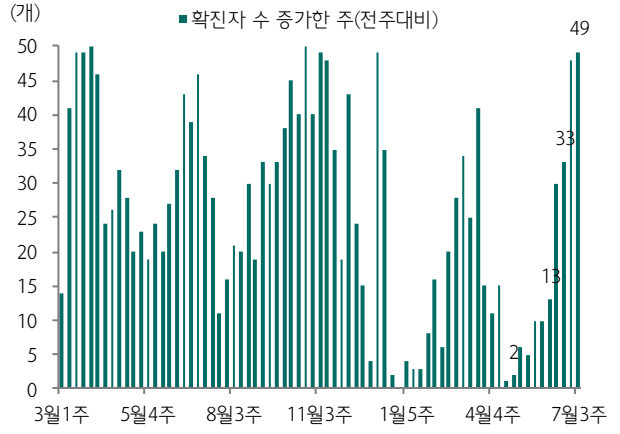
주: '21.07.20 현재 21.2Q GDP 성장률 7.6%(전분기 연율) 전망
자료: Atlanta Fed, 하나금융투자

그림 12. 미국에서는 델타 발 확진자 확산세가 유럽에 비해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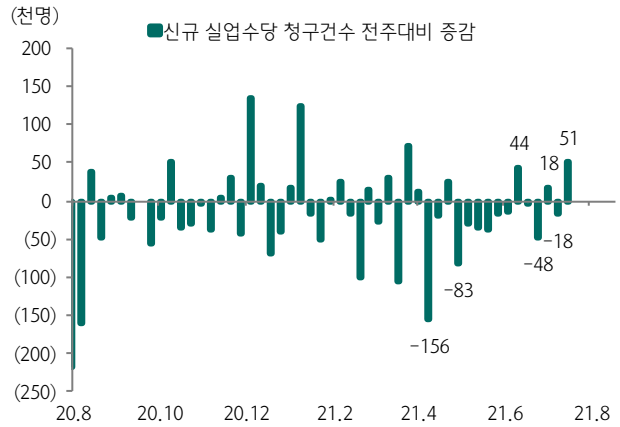
자료: John's Hopkins, 하나금융투자

그림 13. 다만, 미국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징후는 우려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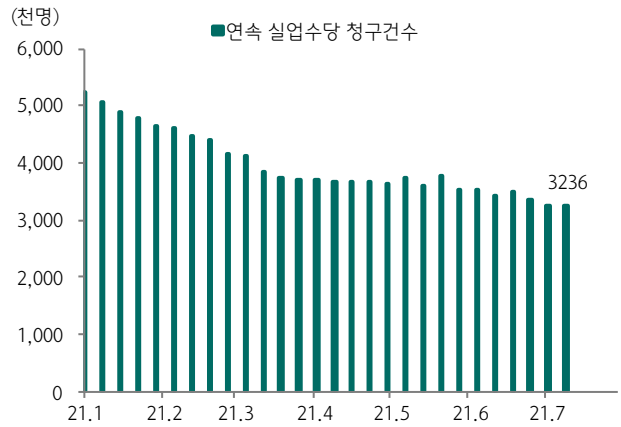
자료: CDC, 하나금융투자

그림 14. 7월 들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실업기간 청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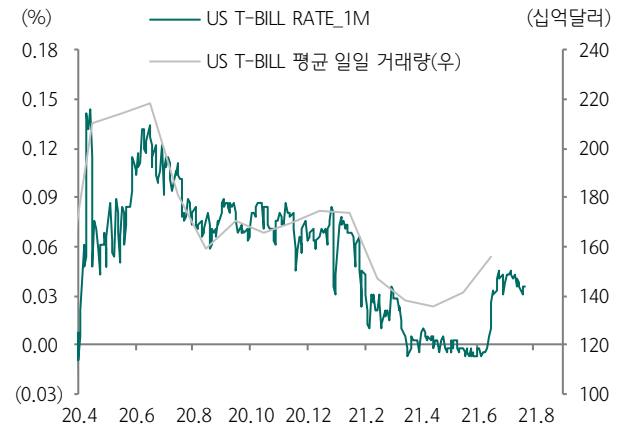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5. 미국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하향 안정세도 주춤할 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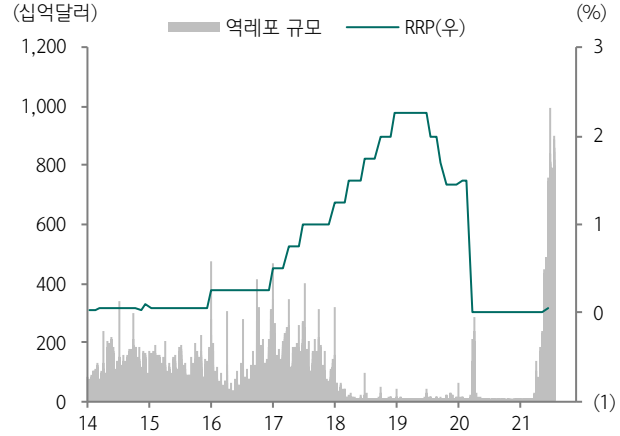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6. 미국 T-Bill(1M) 금리 및 평균 일일 거래량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7. 미국 역레포 유입 규모 및 RRP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3. 6월 FOMC 의사록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경기 판단 및 전망	-소비지출의 견조한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가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대다수 위원들은 소비수요 증가 및 백신 접종 진전으로 지난 3월에 비해 올해 실질 GDP 성장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 다만 공급 차질과 노동력 부족이 올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봄 -노동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회복을 보임. 일자리 공고 증가와 높은 일자리 전환율을 통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 그러나 아직 완전고용 목표 달성에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많은(a number of) 위원들은 노동시장 회복이 인구 통계 및 소득에 따라 계속해서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봄. 백신접종 진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한편 학교 재개 및 실업급여 혜택 만료되면, 여름~가을엔 노동 부족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 예상 -물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4월 PCE가 3.6%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보다 컸음. 이는 상품 및 노동 공급 제약과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 위원들은 일반적으로(generally)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완화될 것으로 봤으나, 몇몇(several) 위원들은 공급 제약과 투입물 제한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다만, 많은 위원들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해 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목표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
자산 매입 정책	-여러(various) 위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본 반면, 일부(some) 위원들은 최근 데이터는 경제에 대한 덜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며 향후 수개월 간은 고용 및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몇몇(several) 위원들은 주택시장의 밸류에이션 압력을 고려해 국채보다 MBS 매입 규모를 좀 더 빨리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반면 다른(several other) 위원들은 국채 및 MBS 매입 모두 완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입 속도 조절을 동등하게 줄여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향후 회의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계속 평가하고, 자산매입 경로 및 구성 조정을 위한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동의. 또한 자산매입 속도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것
통화 정책	-기준금리 동결(0.00~0.25%) -다만 위원들은 단기시장금리의 하락 압력이 가까운 시일 내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봄. 이에 연준의 관리금리 조정(the interest rates on required and excess reserve balances 0.10%→0.15%, overnight reserve RP 금리 0.00% →0.05%)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원활한 시장 기능을 지원. 이번 기술적 조정이 정책금리 또는 통화정책 기조 경로와는 관련 없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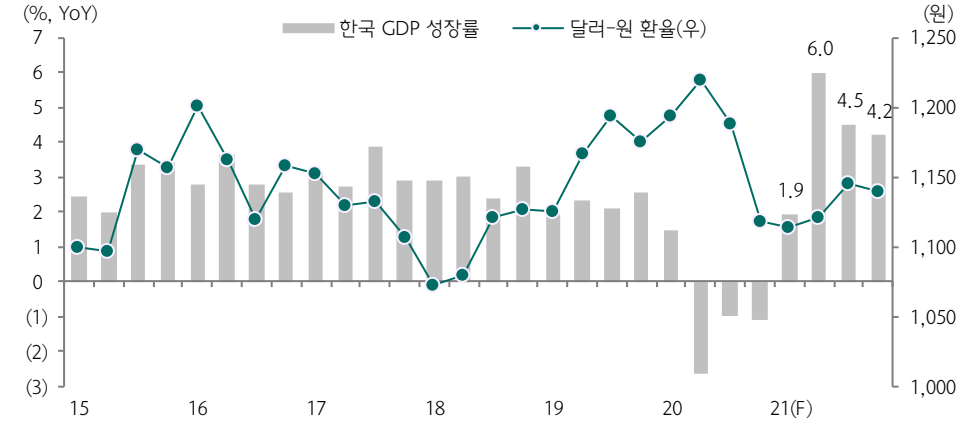
자료: FRB, 하나금융투자

표 4. 미 연준은 지난 6월 2일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SMCCF) 보유지분 매각 결정

직접 신용 지원	주요 내용	정책 조정 내용	대출한도 ($억)
SMCCF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3/23일 설립되어 대규모 투자등급기업들에 대한 신용 공급 지원 (CCF 중 PMCCF는 신규채권 및 대출발행을 위함) SMCCF는 secondary market에서 적격회사채와 ETF 매입	5/12 : SMCCF, 회사채와 ETF 매입 시작 7/28 : 20년 12월 말까지 연장 20년 12월말 만료(매입 중단) 21년 6/2 : 포트폴리오 축소 시작할 것으로 밝힘. SMCCF 운영을 관리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매매 시작 전에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 21년 6/3 :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월 7일부터 ETF 보유지분의 점진적 매각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 오는 연말까지 보유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또한 올해 여름부터 보유 회사채 매각을 시작할 계획으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21 년 7/8 :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7월 12일부터 회사채 보유지분의 점진적 매각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 보유지분 매각은 21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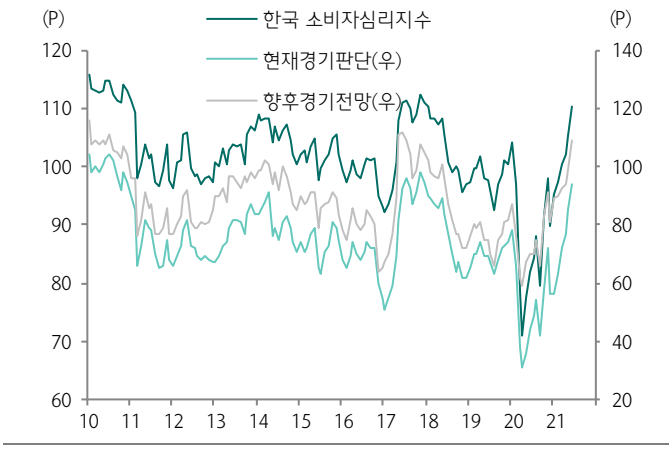
자료: NY Fed, FRB, 하나금융투자

그림 18.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연간 4.2% 내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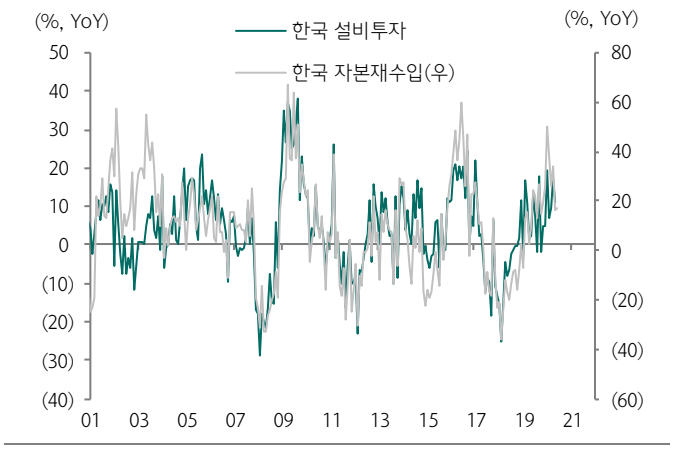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19. 한국 소비심리 회복세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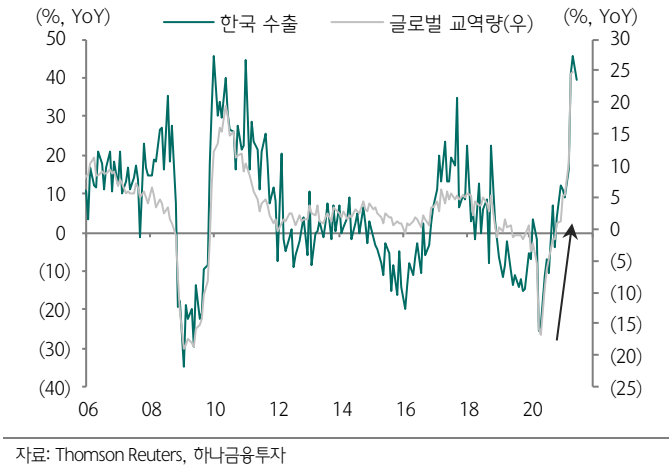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20. 민간 설비투자도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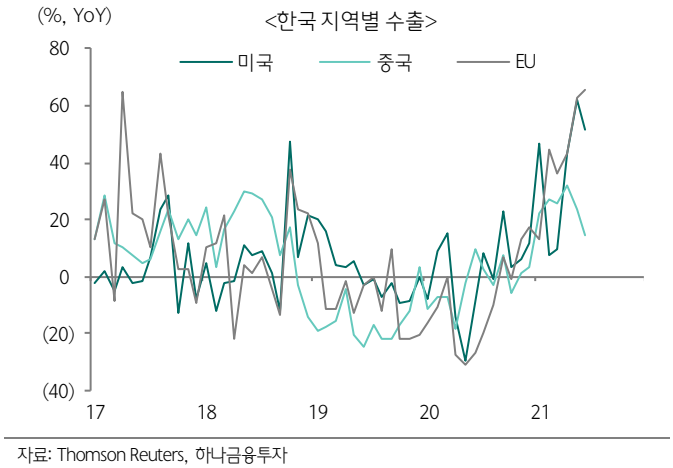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21. 글로벌 교역량 개선되며 한국 수출은 강한 회복세 유지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그림 22. 한국 수출은 주로 선진국 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금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이벤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BOJ 7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7/28	--	★★	위원들간에 물가에 대한 전망이 갈림. 관련 논의 확인할 필요
미국 7월 FOMC	7/29	03:00	★★★	지난달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 시작 공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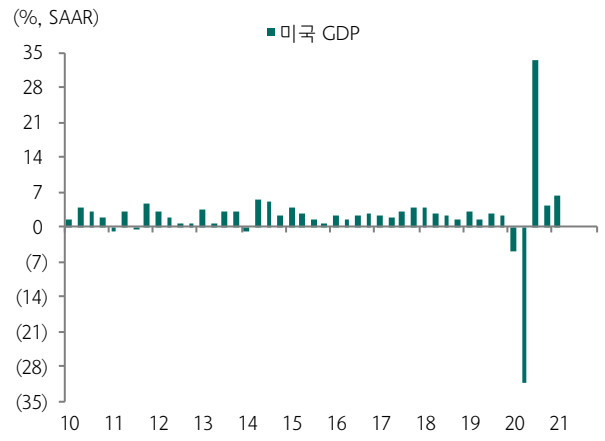
주: 날짜와 시간은 한국기준
자료: 하나금융투자

금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지표	날짜	시간	기준	중요도	예상치	이전치
일본 7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7/26	09:30	기준=50	★★	--	52.4
일본 7월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P		09:30	기준=50	★★	--	48.0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23:00	%, MoM	★★	4.0	-5.9
한국 2분기 GDP P	7/27	08:00	%, YoY	★★★	6.0	1.9
미국 6월 내구재 주문/자본재 수주 P		21:30	%, MoM	★★	2.0/0.8	2.3/0.1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22:00	%, MoM	★★	1.6	1.8
미국 5월 S&P CS20 주택가격지수		22:00	%, MoM	★★★	1.50	1.62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23:00	기준=100	★★★	124.0	127.3
한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7/28	06:00	기준=100	★★★	--	110.3
일본 5월 선행지수/동행지수 F		14:00	기준=100	★★	--/--	102.6/92.7
미국 7월 기준금리	7/29	03:00	%	★★★	0.25	0.25
미국 2분기 GDP A		21:30	%, SAAR	★★★	8.5	6.4
미국 6월 미결주택매매		23:00	%, MoM	★★	0.5	8.0
한국 8월 제조업 BSI	7/30	06:00	기준=100	★★★	--	99
한국 6월 광공업생산		08:00	%, YoY	★★★	8.2	15.6
일본 6월 실업률		08:30	%	★★	3.0	3.0
일본 6월 광공업생산 P		08:50	%, YoY	★★	21.2	21.1
일본 6월 소매판매		08:50	%, YoY	★★	0.2	8.3
일본 6월 주택착공건수		14:00	%, YoY	★★	7.1	9.9
유로존 6월 실업률		18:00	%	★★	7.9	7.9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P		18:00	%, YoY	★★★	2.0/0.7	1.9/0.9
유로존 2분기 GDP A		18:00	%, YoY	★★★	13.2	-1.3
미국 6월 개인소득/소비		21:30	%, MoM	★★★	-0.4/0.7	-2.0/0.0
미국 6월 PCE 디플레이터/근원 PCE 디플레이터		21:30	%, MoM	★★★	0.7/0.7	0.4/0.5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F		23:00	기준=100	★★	80.8	80.8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	7/31	10:00	기준=50	★★★	--	53.5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10:00	기준=50	★★★	51.0	50.9
한국 7월 수출/입	8/1	09:00	%, YoY	★★★	30.9/40.0	39.8/40.7

주 : 1) 국내지표는 당사 전망치, 날짜와 시간은 한국기준, 2)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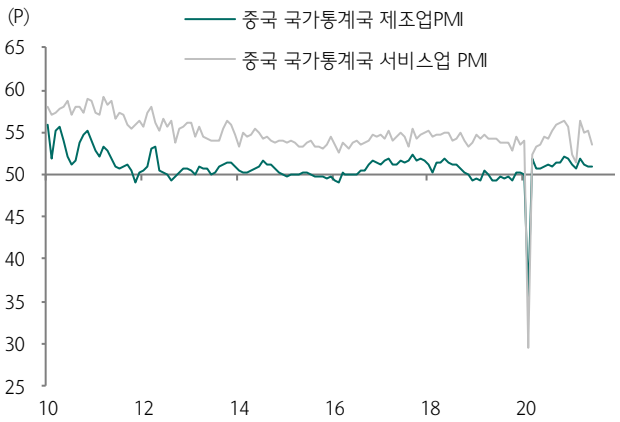
미국 2분기 GDP는 1분기에 이어 증가세 이어갈 전망



미국 2분기 GDP A(7/29): 8.5(E)/6.4(P)

- 미국 2분기 GDP는 1분기에 이어 증가세 이어갈 전망
- 미국 2분기 GDP는 전분기연율 8.5% 기록할 전망. 미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부문이 GDP 상승을 이끌었을 것. 정부의 가계 및 고용 부문 지원과 백신 보급 확대를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가계저축이 pent-up 소비로 연결되며 소비 급증
- 여기에 더해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생산 확대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도 이루어짐. 주택시장 또한 주택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우호적인 금융여건도 지속되면서 건설투자 부문도 견조했을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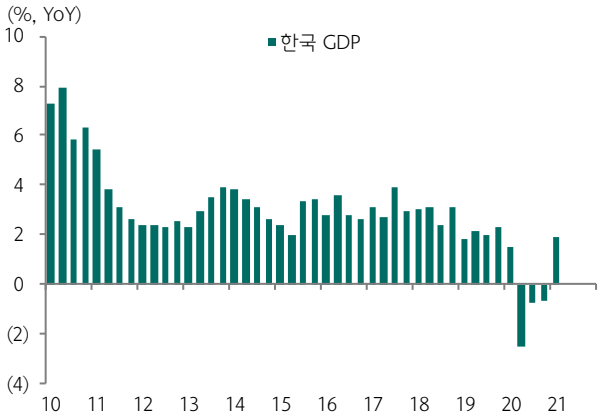
중국 하반기 소비 회복 본격화 되며 서비스업 부문 회복 기대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7/31): 51.0(E)/50.9(P)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7/31): --(E)/53.5(P)

- 중국 하반기 소비 회복 본격화 되며 서비스업 부문 회복 기대
-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51.0P 수준 예상. 중국 생산자물가가 생산재 가격을 중심으로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6월 하락 반전하면서 제조업 기업들의 가격 부담 다소 완화됐을 전망. 수익성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생산 확대했을 가능성
-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는 강보합 예상. 6월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것은 광둥성 등의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강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 코로나19, 연휴 등 일시적 요인 제거되며 고용 등 내수 회복을 기반으로 한 지수의 상승 반전 예상

한국 2분기 GDP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높은 성장률 예상



한국 2분기 GDP P(7/27): 6.0(E)/1.9(P)

- 한국 2분기 GDP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높은 성장률 예상
- 한국 2분기 GDP는 전년비 6.0%, 전분기비 0.9% 수준 기록할 전망.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 흐름 유효. 선진국 향 수요 확대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율 기록 중. 코로나19 발 구조 변화로 민간 설비투자도 확대
- 2분기 중 소비심리가 상승하고 소매판매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민간소비 회복을 지지하는 요인. 정부 추경예산도 성장에 기여하며 올해 한국 성장률은 연간 4.2% 내외의 성장 기대 가능